

KIA, 영건 5명 미국 파견 ‘투수 왕국 재건’ 나선다



KIA타이거즈가 ‘왕조 재건’을 위해 마운드를 다진다.

KIA가정해영·이의리·윤영철·황동하·곽도규 등 5명의 투수와 정재훈

·이동걸 투수 코치를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파견한다.

이들은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내년 1월 20일까지 총 33박 34일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트레이닝을 통한 구속 증가, 구위 향상 등 기량 발전에 집중한다. 정재훈, 이동걸 코치는 바이오 메카닉 등 코칭 프로그램 습득에도 나선다.

2008년 차고에서 시작한 드라이브라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 센터로 ‘괴짜 투수’ 트레버 바우어를 통해 유명해졌다. 클레이튼 커쇼, 오타니 쇼헤이 등 ‘빅리거’들도 이곳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었다.

KIA 선수들은 드라이브라인에서의 첫날 바이오 메카닉 모션 캡처, 체력 측정을 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 개인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설계되며, 이에 맞춰 남은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KIA는 전력기획팀 데이터 분석원도 파견해 드라이브라인에서 구축한 자료를 스프링캠프 및 국내 훈련 등에 적용,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드라이브라인으로 가는 5명의 프로 경력을 합치면 ‘11년’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KIA 마운드의 현재이자 미래다.

정해영·이의리·윤영철·황동하·곽도규와 정재훈·이동걸 투수 코치 미국 시애틀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서 33박 34일 일정 소화 투수 김현수·홍원빈 이어 김기훈·유승철 호주리그에 추가 파견해

이의리와 윤영철은 올 시즌 18승을 합작한 KIA의 대표적인 ‘토종 선발’이다. 4번째 시즌을 보낸 정해영은 90세이브를 수확한 팀의 마무리. 2년 차 우완 황동하와 1년 차 좌완 곽도규는 올 시즌 프로에 첫선을 보인 루키지만 각각 빠른 템포와 정교함·스피드와 배짱이라는 개성 있는 모습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체계적인 관리와 성장을 위해 마운드 ‘핵심 영건’들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KIA는 호주에서는 ‘실전’ 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개막한 호주 프로야구 리그 ABL에 내야수 박민과 함께 투수 김현수·홍원빈이 캔버라 캐발리(Canberra Cavalry) 소속으로 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드라이브라인에 합류하는 좌완 곽도규를 대신해 우완 유승철이 호주로 건너가 캔버라 소속으로 실전을 소화하고 있다.

호주리그 추가 합류도 이뤄진다. 기술 훈련 중인 내야수 윤도현의 실전 투입이 무산됐지만 좌완 김기훈이 일정을 앞당겨 17일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7년 차 유승철과 5년 차 김기훈은 작구 스피드와 구위에서는 팀에서도 손에 꼽는 선수들이다. 하지

만 ‘제구’라는 같은 속제를 안고 있는 두 선수는 일본 마무리캠프에서 새로운 코치들과 변화를 위한 고민을 했다.

각각 투구폼과 궤적에서 답을 찾은 유승철과 김기훈은 내년 1월 21일까지 계속되는 호주리그를 뛰면서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를 미리 시작하게 된다.

탄탄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한 때 왕조로 군림했던 KIA는 최근 공격적으로 투수 자원을 수집하면서 마운드 큰 틀은 완성했다. 젊은 마운드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과감한 투자에 나선 KIA가 마운드 기를 다져 ‘왕조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IA 심재학 단장은 이번 드라이브라인파견에 대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자 이번 파견을 결정했다. 코칭스태프도 선진 훈련 시스템을 잘 습득해 실제 훈련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파견을 계기로 많은 선수들에게 선진 야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팀 전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가 1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식에서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아버지 이종범(오른쪽 첫 번째), 어머니 정연희,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범 아들 아닌 이정후가 되고 싶다” 광주 서석초에 뿌렸던 씨앗 꽃 피웠다

양윤희 서석초 감독

“의지력 보고 ‘진짜’라 생각”

‘이정후’가 되고 싶었던 이정후(사진)가 그 꿈을 이뤘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이정후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파크에서 입단식을 열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수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올 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신청한 이정후는 ‘6년 총 1억1300만 달러(약 1462억원)’이라는 한국인 역대 포스팅 최고액 기록을 작성하며 빅리그 입성의 꿈을 이뤘다.

광주 서석초에서 뿌렸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서석초에서 야구를 시작한 이정후에게는 늘 선이 쏠렸다. 야구 실력도 뛰어났지만 ‘이종범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유독 많은 시선을 받았다.

많은 압박감 속에서도 이정후는 남다른 멘탈로 자신의 길을 걸었다. 이정후는 서석초 시절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정후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힌 적이 있다. 누구의 아들도 아닌, 제2의 누구도 아닌 ‘이정후’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꿈을 이뤘다.

첫 제자로 이정후를 지켜봤던 양윤희 서석초 감독은 “달랐다”고 말한다.

양 감독은 “코치부터 해서 초등학교를 거의 20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다르다’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달랐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다 보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나 스스로도 똑같은 선수로 보고 대하려 노력했었다”며 “성적, 결과가 아니라 운동할 때 의지력을 보고 ‘진짜’라는 생각을 했다. 과정이 달랐다”고 이야기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았고, 다른 선수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웠다. 남 의식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노력을 했다. 조신대 108계단을 뛰는 훈련이 있었는데, 정후는 기준을 통과해도 또 뛰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깨야 했다”며 “자신에게 엄격했던 만큼 과정 자체가 달랐다.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 특정 선수 때문에 경기를 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 감독은 “정신력”이 오늘의 이정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양 감독은 “어릴 때는 신체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더 잘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선수도 있었다. 수비력, 센스, 순간적인 판단이 좋았지만 작고 말라서 신체 조건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멘탈이 달랐다”며 “메타 인지 능력이 좋아서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잘 알았다.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냈다. 내야에서 외야로 이동할 때도 그런 모습을 봤다.



서석초 당시 이정후.

졸업할 때 홈런레이스를 했는데 정후가 1등을 했다. 홈런을 칠 수 있었던 아이였는데 경기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자신은 그런 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타고난 센스와 남다른 멘탈에도 ‘이종범의 아들’이라는 압박감을 겪었지만, 이정후는 스승의 우려를 씻고 최고의 선수로 됐다.

양 감독은 “우리나라 최고 스타플레이어 선수의 아들로서 압박감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겨냈다. 또 스타 선수지만 늘 같다. 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대해도 그냥 동네 형이다. 인간미가 있다. 정후를 처음 만났을 때 30살 어린 감독이었고, 지도 방식도 달라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당시 다운스윙을 하던 때였는데 ‘하체를 기반으로 스윙을 크게 가져가야 한다’, ‘회전을 주라’고 했는데 그걸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며 “지금도 정후가 그 부분에 대해 고마움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선수다. 이번 계약도 대박인데 그 이후에 더 잘될 것 같다고 덕담을 해줬다. 더 성장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역시 서석초에서 이정후를 첫 제자로 만났던 동성고 김동휘 코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바라던 길을 보고 그 길만 걷는 선수였다. 스타여도 항상 바른 선수고, 한결같은 제자다. 장난도 치고 여전히 초등학교 때 포맷이 같다”며 “빅리그에서 견제도 심하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신경 쓰지 말고 배포 있게, 묵심 있게 들어받아서 다 넘어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난 바람의 손자...이기러 SF에 왔다”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입단식

아버지 이종범 소개하기도

6년 총액 1462억원에 계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초대형 계약을 한 이정후(25)가 ‘빅리거’로 첫 행사를 치렀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파크에서 이정후 입단식을 열었다.

이정후는 파란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구단 상징으로부터 ‘SF’가 교차한 모자와 유니폼을 건네 받았다. 유니폼에는 이정후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달았던 51번이 박혀 있었다.

자이디 사장은 “이정후는 KBO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그의 성장을 지켜봐 왔다”며 “그는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고 우리는 이번에 그를 스카우트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야구 키움의 영웅이었던 이정후는 구단 관계자와 현지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의 거인이 되는 의식을 치렀다. “헬로 자이언츠, 마이 네임 이즈 이정후(안녕하십니까, 이정후입니다)”라고 영어로 운을 댄 이정

후는 계속해서 영어로 “나는 한국에서 온 ‘바람의 손자’다. 나를 영입해준 샌프란시스코 구단주 가족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에 고맙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감사하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꿈을 이뤄 기쁘다. 나는 이곳에 이기기 위해 왔다. 레츠고 자이언츠”라고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정후의 아버지는 현역 시절 ‘바람의 아들’로 불린 아버지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다. 이정후의 별명도 자연스럽게 ‘바람의 손자’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후는 자신의 별명에 관해 현지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아버지인 이종범 전 LG 코치와 어머니 정연희 씨도 입단식에 참석해 상기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사회자가 이정후의 부모를 소개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과 모자를 쓴 이정후는 현지 매체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는 역사도 깊고 레전드 선수도 많은 전통 있는 팀이다. 그런 팀에서 나를 선택해 주고 뛰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힌 뒤 “우리 팀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전인 14일 “이정후와 계약 기간 6년 총액 1억1300만 달러(약 1462억원)에 계약했다”며 “2027시즌이 끝난 뒤엔 옵트아웃(구

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정후의 빅리그 첫 시즌(2024년) 연봉은 700만 달러다. 이후 2025년 1600만 달러, 2026년과 2027년엔 2200만 달러, 2028년과 2029년 2050만 달러를 받는다. 계약금 500만 달러다.

계약 기간 동안 56만5000달러를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정후는 포스팅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최고액 기록을 경신했다.

류현진은 2013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간 3600만달러(연평균 600만달러)에 계약하며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중전 한국 선수 최대 규모 포스팅 계약이었다.

타자 중에서는 이정후의 절친한 선배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021년 샌디에이고와 한 4년 2800만 달러(연평균 700만 달러) 계약이 최대 규모였다. 연평균 보장은 김하성이 류현진보다 높았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정후를 2024년 ‘샌프란시스코 톱타자이자 중견수’로 뽑았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에게 ‘평균 이상의 출루율과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대한다.

/연합뉴스